

# 가정상담기



통권 389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2015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 17주기를 맞아 곽배희 소장과 직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였다. (관련기사 28면)



2015년 12월 18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김상용 교수의 강의로 직원재교육이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8면)



4 • 새 해 메시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1956년 8월 25일은 韓國女性史에 길이 남을 金字塔이 세워진 날입니다

8 • 특집 I |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 • 특집 II |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㉔

16 • 가정폭력상담실

21 • 인터넷 상담

22 • 소송구조

27 • 임상실습소감문

28 • 상담소 소식

30 • 지부소장 새해 인사

32 • 결혼과 인생(155) 만화일기

2016 작은 희망 \_ 장차현실

33 • 상담통계

34 • 좋은 책

이상한 나라의 뇌과학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새 해 메시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1956년 8월 25일은 韓國女性史에 길이 남을 金字塔이 세워진 날입니다



윤 후 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이태영 선생님은 “귀중하게 태어난 인간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고, 법 자체가 인간을 차별할 때 그것은 개정되어야 하며”,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약한,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 즉 무료상담, 변론, 대서, 소송대행을 제공하고, 더욱 차별받고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 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법·제도적 개정운동도 벌여나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최초의 서울대 법대 여학생, 한국 최초의 여변호사, 한국 최초의 여성 법학박사(1932~1936 이화여전 가사과 졸업생)라는 화려한 훈장을 헌신짝 같이 내던지시고, 60년 전, 남대문로에 있던 여성단체연구원 사무실에서 결방살이로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하여 올해 창립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 회갑연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문제, 사회인습 때문에 억울하게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호소할 곳조차 없었으며,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였으며, 더욱 인권과 복지란 말은 똥판지같은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남녀차별 제도적 본거지가 되고 있는 가족법(친족상속법)은 관습존중, 미풍양속이라는 대명사 아래 여성들을 꿈틀거리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법률상담소의 개원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인권을 말하고,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약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는 하늘 아래 첫 쉼터가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념과 열정·사명감만으로 인력·장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원을 한 상담소는 이후 몇 차례 장소를 옮기면서 자립·터전의 마련에 등골을 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태영 선생님의 비상한 아이디어로 벽돌 한 장 기부하기, 10인 클럽, 17인 클럽,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1층·2층 등 올리기, 상담실·회의실 만들기 등에 동참함으로써 드디어 1977년 여의도에 「여성백인회관」을 건축하여 지금의 상담소가 내 집 건물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 회관은 눈물겨운 한국 사회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서 인권운동, 법의 서민화 운동, 여성운동의 상징적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당시 직원들을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들인데 별로 봉급도 없이 무료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허허벌판에서 때로는 때를 쓰면서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1966년 드디어 法人으로서, 社團法人 家庭法律相談所가 되었고, 1976년 공익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특히 1988년 민간단체 최초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상담소가 이룩해 온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무료상담, 대서, 화해·조정, 소장 작성, 소송대행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이 2015년 11월말 현재, 본부만으로는 1,463,579건, 지부를 포함하면 3,573,582건에 이릅니다. 또한 1972년 4건으로 시작된 소송구조는 해마다 증가되어 2005년 90건, 2015년 11월말 현재 본부만으로는 491건, 전국의 지부를 포함하면 1,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의 출장상담, 시대변화에 따른 인터넷 상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경제적 위기 앞에 흔들리는 가족, 가족구성원의 개인파산, 면책 등의 법적 절차를 위한 무료지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등을 통해 절실하게 인식된 것은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특히 기존의 가족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완고한 가부장적 남계혈통 중심의 인습이 남성들 몸에 진액 같이 붙어 있어 여성의 인권, 양성평등, 부부평등의 사회적 제도·문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일찌감치 통찰한 선생님과 상담소는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가사심판법 제정의 입법 초안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1960년 제1차 개정, 1977년 제2차 개정, 1989년 제3차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데모·행진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좀 거들었습니다만, 그 때 가족법 개정 반대자들, 남성들이 특히 선생님을 향해 퍼붓던 폭언·행패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은 미동도 않으시고 더욱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참으로 황소 같은 분이 라고 여겨졌습니다.

1998년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영면 이후에도 상담소는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7년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2005년 우리사회에 역사적 전환을 가져온 戶主制 폐지 등 지금까지 총 11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주도해 왔으며,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의 입법,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법에 반영토록 하는 등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상담소는 가정문제의 심층적 해결, 예방 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하여 사회교육사업 및 일반대중 대상의 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돕기 위해 생활법률 강좌,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교육, 폭력예방교육, 그리고 1964년부터 시작한 법률임상실습(주로 가족법)도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생 등에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문제를 바르게 진단·대처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관점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및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1976년 세운 여성백인회관이 세월의 풍상으로 낡게 되자 2007년 그 자리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담소 건물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009년에는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발간하여 이태영 선생님께 헌사 하는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사실 17년 전 태산 같은 선생님이 상담소를 두고 훌훌히 떠나가실 때 저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상담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매우 애처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물론 어간에 사위이신 김흥한 변호사께서 소장으로 돌보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광배희 소장, 차명희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선생님을 닮아 황소 같이 일하며, 몸집들에 비해 강골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열성을 다해,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혼신을 다해 섬겨 옴으로써 큰 족적과 함께 오늘날 가정법률상담소를 한국 가정법률 구조사업 본산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 계실 때처럼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 계실 때 함께 일한 이사님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위에서 본 바 대로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번민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으로 지탱하는 사업은 결코 장수하지 못하나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지탱하는 사업은 영원할 것이라”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유산과 후계자들, 전 직원의 희생적 헌신의 자산 때문입니다. 진실로 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축하합니다.

2015. 12.

윤후정

# 가정상담

<가정상담>은 상담소의 이념과 법률구조 사업을 비롯해 가족법개정운동의 현황 및 상담소 사업 전반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담소의 정기간행물이다.

상담소 창립 15주년인 1971년 10월 5일 연간의 형태로 첫 호를 발행하였으며 1978년까지 모두 8호를 발행한 뒤 1979년에는 연 2회, 1980년에는 연 3회를 발행하였다. 1981년 4월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하면서 판형도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바꾸었으며, 제호의 글씨도 원곡 김기승 선생의 친필제호를 사용하였다. 1986년 창립 30주년의 해를 맞아 <가정상담>은 월간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판형과 체제를 새롭게 갖춰 국배판 16면 발행을 시작하였다. 2008년 8월에는 통권 300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호부터는 2008년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축회관 개관에 부친 정희성 시인의 축시 '저자꽃 핀 봄날'에서 시인의 친필 글자를 모아 제호로 사용하였다. 현재 <가정상담>은 매월 36면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을 향한 큰 걸음을 시작한 상담소는 새로운 다짐의 마음으로 <가정상담>의 제호를 바꾸었다.

제호는 한국법제사, 가족법의 대가이며 한학과 서예에서도 높은 경지를 이룩한 박병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친필이다.

가정상담 (A)

가정상담 (B)

(A)는 병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늘게 쓰고 상담을 크게 썼으며 (B)는 가정의 소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을 굵게 썼음.

ㅇ을 둥글고 크게 쓴 것은 원만한 가정과 원만한 상담을 나타내고 ㅁ을 크게 한 것은 마음을 열고 할 말을 다 한다는 뜻으로 한 것임.

제호는 박병호 교수가 제시한 대로 (A)와 (B)를 합쳐 획을 고르게 쓴 것으로 정하였다.

귀한 친필을 주신 박병호 교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년 총결산

### 1월

- 5일 시무식
  - 5-30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 9일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 
- 12-23일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기
  - 13일 여성신문사 주최 여성계지도자 신년하례회/곽배희 소장
  - 14-16일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21일 법무부 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2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2월 26일, 3월 26일, 4월 23일, 5월 28일, 7월 23일, 9월 24일, 11월 26일)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원리' /이민식 박사
  - 23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곽배희 소장
  - 26일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장 주최 공관 만찬/곽배희 소장
  - 26일-2월 6일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3기

본부 총 상담 6,166 건

### 2월

- 2일 정기 전기 이사회
- 4일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오찬 겸 회의/곽배희 소장

- 6일 한부모를 위한 순회상담(애란원)/조은경 상담위원
- 9-25일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4기
- 10일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과 오찬 겸 간담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2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실무자 내소 및 서류 결재/곽배희 소장
- 여성가족부 주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관련 전문가 간담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등지교실 교육강좌 '비폭력대화의 목적과 모델'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6일 MBC TV 뉴스테스크와 명절증후군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26일 SBS TV, JTBC, YTN,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과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소외와 단절을 가져오는 관점과 대화' /이민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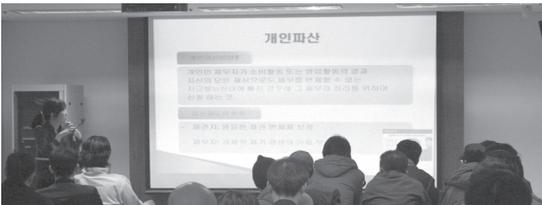


- 27일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 법원행정처 주관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경찰청 4대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6,225 건

3월

- 4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I」 1학기 개강
- 5일 SBS TV 간통 관련 토론회 출연/곽배희 소장
- 6일 KBS TV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관련 인터뷰/  
곽배희 소장  
여성가족부 간통죄 위헌 판결 후속조치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간단체(여성·청소년·아동)  
간담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1일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대학원장 본소 방문  
노숙인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정연이 상담위원
- 12일 등지고실 교육강좌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vs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3일 정기총회
- 16일 여성가족부 양육비 법률구조 업무협약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한부모를 위한 순회상담(애란원)/조은경 상담위원
- 18일 서울가정법원 여상훈 가정법원장과 본소의 가정법원  
출장상담 등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정연이 상담위원



- 1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교육 강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일 인천지부 박희경 신임소장 본소 방문  
상담원 대상 법교육(경기1366)/복미영 상담위원
-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 및 법률구조 업무협약식/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6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비폭력적인 삶을 위한 대화모델'/이민식 박사  
영등포경찰서 여성아동보호 솔루션팀 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7일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정기회의/곽배희 소장
- 31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7,273 건

4월

- 1일 박도민 신임 공익법무관 부임
- 8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여의도 시민공원)
- 9일 등지고실 교육강좌 '4가지 다르게 듣기'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0일 직원재교육 '미국문명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  
조철원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11-12일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 15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I」강의/  
곽배희 소장  
폭력예방교육(제천여자중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16일 서울시 신용회복법교육 및 출장상담  
(은평지역자활센터)/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 22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곽배희 소장
- 23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자기 공감과 선택의 자각'/이민식 박사
- 24일 제25회 법의 날 기념식/곽배희 소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법률구조지원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8일 서울시 신용회복법교육 및 출장상담  
(은평지역자활센터)/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6,836 건

5월

- 12일 상담원대상 법교육(경기북부1366)/김진영 상담위원  
서울시 신용회복법교육 및 출장상담  
(영등포지역자활센터)/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 13일 제2회 운후정 통일포럼 참석/곽배희 소장  
온누리교회 호스피스 출장법교육/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4일 등지고실 교육강좌 '4가지 다르게 듣기'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8일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사건 공개변론 준비모임/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1일 본소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  
- 혼인 중 재산분할 인정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보호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의 간담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7일 교육부 미성년한부모를 위한 일일교육(애란원)
- 28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다루기와 표현' /이민식 박사
- 30일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서울 시민청)

본부 총 상담 5,814 건

6월

- 1일 제25회 호암상 시상식 참석/곽배희 소장
- 10일 본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부모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곽배희 소장
- 11일 동지교실 교육강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자칼 생각 찾기'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윤정 부대표
- 15일 폭력예방교육(대영중학교)/정연이 상담위원
- 15-26일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1기
- 18일 본소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개최



본부 총 상담 5,917 건

7월

- 2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곽배희 소장
- 9일 전국이혼상담가협회 실무자대상 출장법교육/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동지교실 교육강좌 '분노에 대한 나의 습관  
찾아보기'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윤정 부대표
- 13-24일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기
- 14일 법률구조체험교육(강신중학교)  
서울시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식 참석/  
곽배희 소장
- 폭력예방교육(대영중학교)/최수진 상담위원
- 16일 하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겸 직원재교육
- 23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감사하기와 거절 주고받기' /이민식 박사
- 25-26일 교육부 한마음 가족캠프
- 28일 상속법 강의(영등포노인상담센터)/북미영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5,952 건

8월

- 3일 사법연수원 45기 2명 신임 공익법무관 부임
- 3일-9월 23일 변호사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제45기 2명
- 12일 법무부 주관 중등교사 연수 출장법교육/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3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민간기관간담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동지교실 교육강좌 '분노 안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기'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윤정 부대표
- 19일 법률구조체험교육(성남지부· 수원지부 현장실습생)  
김포여성전화 가정폭력상담원양성교육에서  
가족법과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1일 '월스트리트저널' 지타 아난드 선임기와 인터뷰/  
곽배희 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5일 임시 이사회  
본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실습교육세미나에서  
우수 실습기관 선정 및 감사패 수상
- 27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정연이 상담위원
- 27일-8월 7일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3기

본부 총 상담 6,393 건

9월

- 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실무자 내소 및 서류 결재/  
곽배희 소장
- 2일 대전 다누리콜센터 주관  
'2015년 위기 이주민가족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과정'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3일 전화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모임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에 파산면책 패스트트랙  
업무협조관련 방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8일 영국 국제아동탈취구조기관(Reunit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enter) 엘리슨 살라비 사무총장  
및 앤 마리 허치슨 영국여성변호사협회장 방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패스트트랙 관련 방문/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9일 미국 가정폭력개입프로그램 '덜루스' 모델  
전문가와 간담회 겸 직원재교육



- 10일 동지교실 교육강좌 '자기공감'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1일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곽배희 소장
- 12일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 16일 춘천지역 아동시설 종사자 대상 해결중심치료학회  
윤리교육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7일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분과 회의/  
이숙현 편집부장
- 18-19일 교육부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률캠프(삐띠프랑스)



- 22일 임시 총회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원 교육 강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상속·유언강의(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김진영 상담위원
- 24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우울증의 이해와 극복' /이민식 박사
- 25일 법률구조체험교육(강신중학교)

본부 총 상담 6,001 건

10월

-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 6일 이화여대 공식블로그 '이화Today' 홍보팀과 인터뷰/  
곽배희 소장
- 8일 이화여대 사범대 부속 자모들의 자원봉사모임 '이삭희' 40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곽배희 소장
- 14일 포항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4일 여성 가정폭력행위자 상담매뉴얼개발 자문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5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분석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FGI/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8일 동지교실 교육강좌 '감사'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9일 상속·유언강의(신길종합사회복지관)/최수진 상담위원
- 20일 상속·유언강의(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복미영 상담위원
- 21일 교육부 미성년한부모를 위한 일일교육(애란원)  
서울시 여성폭력프로그램 운영기관 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상속·유언강의(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정연이 상담위원
- 23일 본소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심포지엄 개최



- 24-25일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수탁기관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9일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분과 회의/  
이숙현 편집부장

본부 총 상담 5,805 건

11월

- 2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5일 폭력예방교육(이의초등학교)/조은경 상담위원  
폭력예방교육(매봉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6일 폭력예방교육(안산부곡중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9일 본소 개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여성가족부 2015년 폭력예방교육 우수콘텐츠로 선정
- 11일 폭력예방교육(상갈중학교)/차연실 상담위원
- 12일 동지교실 교육강좌 '분노를 비폭력대화로 표현하기'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3일 폭력예방교육(효정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6,321 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 14-15일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서울 시민청)



- 16일 상속·유언강의(잠실종합사회복지관)/복미영 상담위원
- 17일 폭력예방교육(시흥은행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폭력예방교육(조원초등학교)/이지현 상담위원
- 20일 폭력예방교육(별망중학교)/복미영 상담위원
- 25일 노숙인 신용회복관련 실무교육(은평의마을쉼터)/  
정연이 상담위원
- 26일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가족법 개정사' /곽배희 소장
- 27일 정기 후기 이사회  
전화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모임
- 28-29일 라오니캠프
- 30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곽배희 소장

본부 총 상담 5,765 건

12월

- 4일 폭력예방교육(양감중학교)/김진영 상담위원
- 7일 폭력예방교육(광문중학교)/차연실 상담위원  
폭력예방교육(송정초등학교)/이지현 상담위원
- 10일 동지교실 교육강좌 '용서와 애도'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대표
- 11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행사 발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5일 법률구조체험교육(양강중학교)
- 17일 이태영 선생님 17주기 추모식
- 18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세미나 토론/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1일 폭력예방교육(세종과학고등학교)/조은경 상담위원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0\*

## “나를 따라와 이 일을 한다면 천당은 모르겠으나 결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

### 차 명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1965년 대학 4학년 때 이태영 선생님의 법률상담실습과목을 수강했다. 선생님이 학장으로 부임하여 교과과목을 개편하면서 법률상담실습뿐 아니라 여성운동사, 가사심판법, 회의진행법 등이 신설됐다.

개강 첫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시집이나 잘 가려고 이대에 왔으면 당장 학교를 그만두어라. 대학은 학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남자 대학생의 1/5밖에 안 되는 여자 대학생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특히 여성 법학도는 남녀차별의 굴레에서 억압받고 빈민하는 여성을 위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 인권운동과 법의 서민화, 생활화를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었다.

요즘 말로 카리스마와 달변으로 우리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압도됐다. 법률상담실습은 선생님이 설립한 여성법률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

다. 실습에 앞서 상담심리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등을 다른 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게 했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극도 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에 임상교육이 필요하듯 가정과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법학에도 반드시 임상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해 개강 초부터 대학기는 한일회담비준반대시위로 학생들이 연행되거나 투옥되고 휴교조치가 내려지는 등 어수선했다. 이런저런 일로 나는 학기 중에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2월 졸업시험을 마쳤다.

선생님은 1, 2월에 실습을 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먼저 학점을 주어 졸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셨고, 졸업 직후인 3월에 상담간사로 임명하셨다. “나를 따라와 이 일을 한다면 천당은 모르겠으나 결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본소에서는 2014년 6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담긴 각계 인사들의 추모의 글을 연재한다.

당시 상담소는 서소문동 옛 서울가정법원 구내에 있는 관사 살림집의 방과 부엌을 개조한 곳에 있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그해, 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사단법인 설립도 마쳤다. 10주년 기념식에서 선생님은 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여성 후원자 10인, 17인 클럽을 조직해 나갔다.

1970년, 서울가정법원의 이전으로 상담소는 퇴계로 5가로 이사했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집, 여성백인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고, 회관 건축담당 실무자로 나를 임명하셨다. 국내 100명, 해외 100명의 여성 백인회원을 모집하고 상담실, 강당, 도서실, 1평, 벽돌 100장, 10장 회원 등을 모집했다. “돈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뜻으로 세우는 집”이란 말도 지어내셨다.

건축비 모금을 위해 외국에 다녀오시면 해외교포들이 모아 준 기금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로 건네주시곤 했다. 교포들에게 모금 강연할 때면 “나 죽으면 꽃값 낼 생각 말고 지금 건축비로 미리 달라.”고 하셨다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1975년 건축기금 모금이 한창일 때, 선생님은 막사이사 이상-사회봉사부문-을 받으셨다. 어느 하늘에서 비가 올까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필리핀 하늘에서 비가 왔다.”면서 상금 1만 달러(당시 환율 480원)를 건축기금으로 내놓으셨다.

1976년 12월 30일 여성백인회관을 완공하고 선생님과 나는 보일러에 첫 점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건축 완공을 앞둔 12월 10일 제28회 인권기념일에 나는 인권옹호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데, 선생님은 3·1구국선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담소 사업과는 별개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상담소 후원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으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으나 상담소를 위해 그 상을 받았다. 몇몇 친구들은 내놓고 모욕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새 회관에서 선생님은 오랫동안 꿈꾸시던 모든 사업을 펼치셨다. 무료결혼식 사업을 시작했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청소년상담, 노인상담도 새로 시작했다. 가족법을 비

롯한 재산법·세법강좌, 시민공개강좌, 어머니학교, 할머니-할아버지학교, 혼인준비교실, 기러기교실, 어머니를 위한 자녀교육강좌, 외국여행 실용영어교실, 서예교실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면서 아예 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했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 문제의 예방 사업으로 1년에 두세 강좌씩 새로 열었다. 지금이야 평생교육이 일반화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에 선생님은 샘솟는 창의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한 강좌씩 계획해 냈다. 자는 시간도 아까워한 선생님기에 공휴일을 싫어했고, 연휴에는 아예 화를 냈다. 할 일이 태산 같은 나라에서 늘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밤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사업계획을 짜서 스타킹 포장지에 빼곡히 적어 아침회의에서 의욕에 넘치는 설명과 함께 지시를 하셨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사업이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같이 설득이 되고 세뇌되곤 했다. 이후 선생님은 가정현장 제정, 상담소 노래 제정, 출판사 등록, 법률구조법 제정과 법률구조법인 등록 등 참 많은 일을 해냈다.

대학 시절 선생님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의 자서전 『On My Own』에 감명받았으며, 없는 길을 만들며 나의 길을 가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났다. 선생님은 평소 “생각하며 생활하며 기도하며”를 좌우명으로 삼고 계셨다.

선생님은 1953년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셨다.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조직하셨을 때 나를 그 단체의 총무로 파견하셨다.

1990년 가족법 개정 직후 선생님은 “가족법 개정은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인권운동으로 첫 여성법률가로서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모든 사물을 오로지 상담소와 가족법 개정의 안경을 쓴 눈으로만 바라보며 달려왔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그 길고 높고 두꺼운 인간차별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아직 동성동본금혼과 호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말끔히 정리할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천명하셨다.

39세에 시작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미완의 성공으로 76세에 이루신 것이다.

선생님은 1998년 세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뜻을 이어 우리는 2005년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 폐지를 이루어냈다. 하늘나라에서 선생님도 기뻐하며 우리를 칭찬하셨을 것이다.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기도를 생활화하셨다. 1969년 어느 날 영국 대법관의 기도를 본떠 상담소의 기도를 만드셨다.

“은 인류의 공정하고 자혜 깊은 법관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오늘까지 매일 아침마다 전 직원이 함께 울리며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선생님은 절약이 몸에 배이고 공사 구분을 엄밀히 하시는 분이였다. 물자가 귀한 시절을 지내신 탓도 있겠지만 편지 봉투나 포장지, 달력 뒷면 등의 재활용에 철저하셨다. 어쩌다 우리들이 새 종이에 메모라도 하면 엄히 꾸짖으셨다. 공무용 이외의 개인 사용 전화요금을 통화 수대로 내도록 하셨고, 가끔씩 안 입는 옷이나 스카프 등을 나누어 주셨다. 잘못을 꾸짖을 때는 다시 안 볼 듯 심하게 하지만 그때뿐이고 정말 뒤끝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었다.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법률, 상담기법, 상담심리 등 강의를 열어 주고 대학의 관련 학과 청강도 주선해 주셨다. 직원 중에 공부를 계속하는 이에겐 선생

님 이름의 장학금을 받게 해 주셨다. 육아나 공부를 위한 파트타임 근무나 휴직도 허락하셨다. 그야말로 경력 단절을 막는 인력관리에도 선구자였던 것이다. 외국 법률구조기관 시찰과 인턴 실습을 보내 인적 자원의 자질 향상을 기했다.

팔십 평생 늘 식사를 잘하시고 건강하셨던 선생님이 병환을 얻어 고생하실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안타깝고 슬펐다. 최근 기억부터 잇는다더니 내가 찾아보면 학생 때부터 보셔서인지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가을 어느 날, 식사 때를 거르시고 마당에서 한가롭게 돌과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시며 앉아 계셨다. 송구하지만 아기처럼 달래서 겨우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손을 씻으시는데 한 손을 꼭 쥐고 계셨다. 겨우 펴 보니 옷핀과 단추, 클립 몇 개였다. 버려진 것이 아까워서 마당 흙 속에서 열심히 주우신 것 같았다.

식사를 하시게 하려고 나도 함께 상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수저 밑에 놓인 종이 냅킨을 들어 반을 잘라 나를 주시고 내 수저 밑의 냅킨은 건어서 곱게 접어 옆에 챙기셨다. 평소에 늘 반을 잘라 쓰셨던가 싶은데 아기가 되어서도 그 일상습관은 잊지 않으셨다.

그날 나는 참 많이 울었고, 그 후로는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지 못했다.



## 다양한 상담과 이후의 자조모임 통해 상담의 효과 더해

사건번호 2015버7\*\*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 개별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전화상담 1회, 자조모임 1회,  
 부부상담 4회, 부부 교육강좌 1회, 부부 집단상담 8회,  
 부부 음주문제상담 4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6회 실시

### 상담기간

2015. 5. 13. ~ 2015. 10. 8.

###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43년 되었으며, 행위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요양사로 일한다. 부부 사이에는 1녀1남(42세, 40세)가 있다. 딸은 결혼하였고, 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 3급이다. 행위자의 아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원인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특히 담당재판부는 부부상담을 결정하여

(괄호 주문)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결혼 초기부터 행위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향이 있다. 행위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비하여 폭력을 하는 횟수와 정도는 줄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폭력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사건 당일 아들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토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도 같이 상담을 받겠다는 의사가 강하였으며, 행위자의 음주문제, 분노조절 문제, 주말에 경륜장에 다니는 것을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첫 상담일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부부가 불화하며 살아야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하였고 성격 차이, 자녀문제, 자신의 음주문제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마지못해 상담에 임하는 태도는 보였지만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문제음주자로서 단주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되었고, 음주문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음주에 대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로 인한 심인성 신체장애를 호소하였는데 지금까지 삶의 초점을 남편에게 두었고 남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였음을 상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또한 상담소의 연계로 알콜가족협회에 1주일에 1회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상담 종결 시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갈등 원인으로 꼽은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한 결과, 행위자는 절주하고 있고,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경륜장애는 가지만 이전과 달리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만 가고 내기를 하는 액수도 많지 않아 취미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마음 속 응어리를 푸는 기회를 가지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었고, 행위자와 심리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노력도 기울이게 되었다.

행위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70점, 상담 종결 시점의 부부관계를 9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상담기간 중 폭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및 성역할과 폭력에 대한 인식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행위자의 변화 및 현재의 부부관계에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상담 종결 이후에도 아내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로 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행위자 집단상담 9회,  
 피해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자조모임 2회,  
 집단상담 6회,  
 부부상담 3회, 부부 교육강좌 3회, 부부 집단상담 2회 등  
 총 34회 실시

**상담기간**

2015. 4. 8. ~ 2015. 10. 1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32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31세, 29세)이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시누이에게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피해자는 결혼 초부터 행위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원가족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상처를 주었으며 외도를 의심케 하는 행동도 있었는데, 2013년 본 사건의 계기가 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를 용서는 하였지만 행위자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부부는 행위자의 상담위탁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매우 의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 상담일부터 매 상담일일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 편 피해자는 별도로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다. 부부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였고, 교육강좌 수강 후 피해자가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상기고 행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부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부부가 다투고 서로 폭력을 행사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경찰에 사건 접수). 피해자가 결혼 초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행위자가 치과의사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행위자와 다투면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 후 행위자는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 때부터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던 부부집단상담을 중단하고 행위자만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상담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집단상담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도움을 받도록 격려했고,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부부는 화해하였고 행위자는 다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부는 다시 함께 상담에 참여하였지만 부부의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 부부를 분리하여 행위자는 행위자 집단상담에, 피해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던 부부집단상담에 각 참여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과거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고 분노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했으며, 행위자는 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내의 감정 기복 원인이 자신에게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숙고 후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는데,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조건 따르겠다는 생각으로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며 더 많은 재산을 아내에게 분할하였다.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는 이혼과정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가졌던 미운 감정이 사라졌으며, 현재 매우 편한 마음 상태로 앞으로 서로 뜻이 맞지 않게 되면 이대로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행위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가 낙제점이었다면 지금은 A+라고 평가하였고, 피해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30점, 지금은 80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상담기간 중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한 처분이 어떤 처분일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담을 종결하였다(상담기간 중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어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행위자는 본 상담소에 다시 위탁되어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고 있다).

**사건번호 2015형 제6\*\*\*\*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담진행**

가해자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3회  
 피해자 전화상담 2회 등 총 12회 실시

**상담기간**

2015. 8. 19. ~ 2015. 10. 12.

**상담경과**

가해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3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30세, 28세)이 있다. 가해자는 본 사건 이전인 2014년에 가정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선풍기와 청소기를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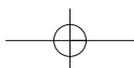
어던져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10회, 20시간)으로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다.

가해자는 초상담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문제삼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0여년 전 부터 자신과 시가식구들을 무시하였지만 아이들과 주위의 이목 때문에 참고 살았고 현재는 피해자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으며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생업 때문에 상담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급하고 독선적이며 일방적인 가해자의 성격이 상담을 통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과거에 가해자가 도박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이 가해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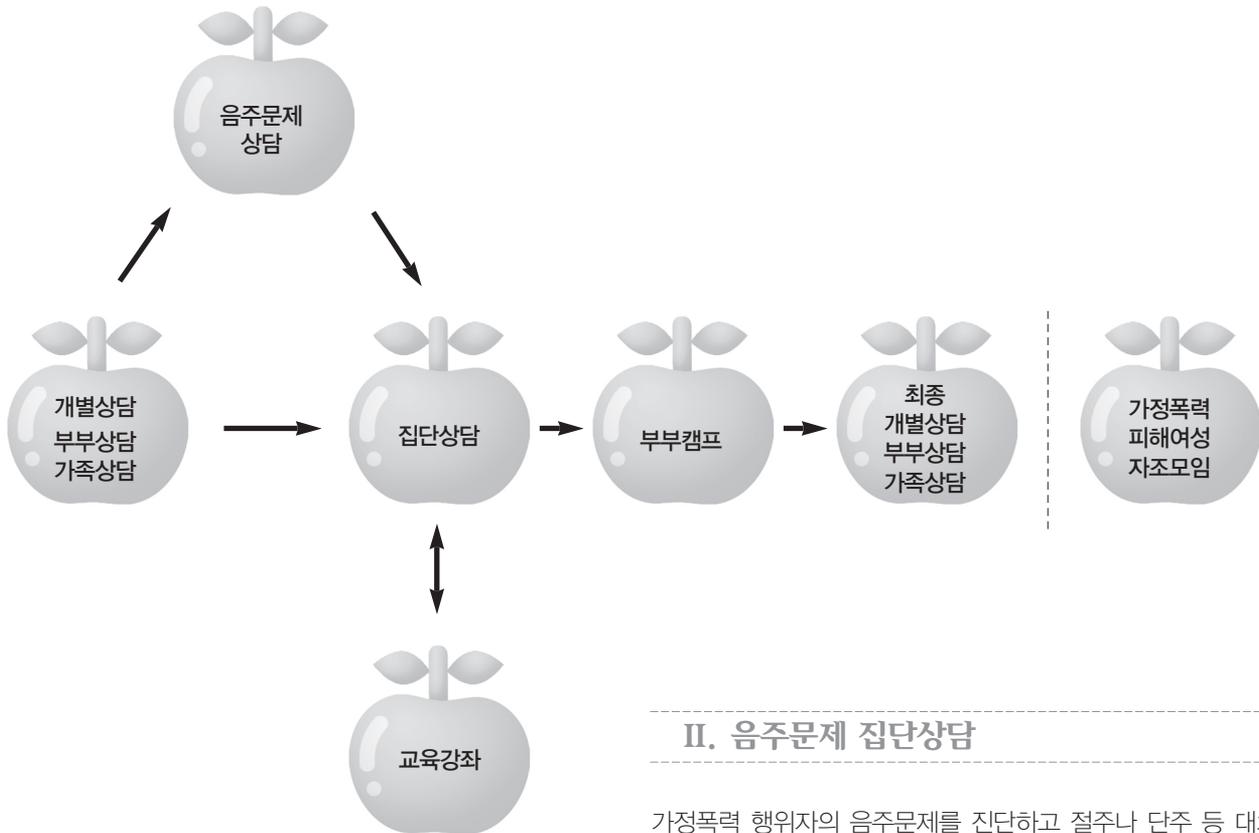
가해자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점을 인정하고 상담을 통하여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상담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상담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말수를 줄이면서 부부간에 충돌이 적어졌다. 가해자는 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말수를 줄이다보니 부부간 친밀감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언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변화된 부부 대화방식과 개입 정도를 바람직한 상태로 평가하였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 2016년도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본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한다. 2016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 일시 : 연중
-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
- ▶ 진행 : 본소 상담위원

###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김혜선 교수

- ▶ 일시 : 연 3회(각 6회기)
- ▶ 대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
- ▶ 진행 :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날짜	1회 : 2/15, 2/29, 3/14, 3/28, 4/11, 4/25 (6회기)
	2회 : 5/2, 5/16, 5/30, 6/13, 6/27, 7/11 (6회기)
	3회 : 9/5, 9/19, 9/26, 10/10, 10/24, 11/7 (6회기)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공유



이서원 소장

- ▶ 집단상담 ①
-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상 : 가정폭력행위자 및 부부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정윤경 교수

- ▶ 집단상담 ②
- ▶ 일시 : 3~6월, 9~12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 ▶ 진행 : 정윤경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IV. 등지교실



캐서린 한 대표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진행 : 캐서린 한 대표 외(한국비폭력대화센터)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정	강의제목
2월 11일	부부 사이의 대화, 어떻게 잘 할 것인가? -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3월 10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좋은 대화를 방해하는 나의 말버릇 고치기
4월 14일	부부 사이에 신뢰 쌓기
5월 12일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하나?
6월 9일	화에 대한 이해, 화병을 풀기
7월 14일	불안한 자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8월 11일	내 상처를 어떻게 다스릴까?
9월 8일	다른 사람 공감하기
10월 13일	자기 공감하기
11월 10일	용서하기와 용서구하기
12월 8일	진실한 감사 표현하기

###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

- ▶ 일시 : 연 3회  
(2016년 4월 9일~10일 / 7월 9일~10일 / 11월 19일~20일)
- ▶ 대상 : 본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꿈꾸는 부부 및 가족
-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 VI.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역량 강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장희숙 교수

- ▶ 일시 :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진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VII.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상담을 통한 변화 등 확인, 향후 계획 수립 및 점검

- ▶ 일시 : 연중
- ▶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
- ▶ 진행 : 본소 상담위원



# 인터넷상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한국국적을 가진 재미교포이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고, 미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국에서 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한국에서 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버지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 Q

#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56조에 따라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의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 혼인의 자의 출생신고를 그 나라 관공서에 제출하여 작성된 출생수리증명서 등은 단지 출생신고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그 서류만으로는 아버지가 혼인의 자를 인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인지의 효력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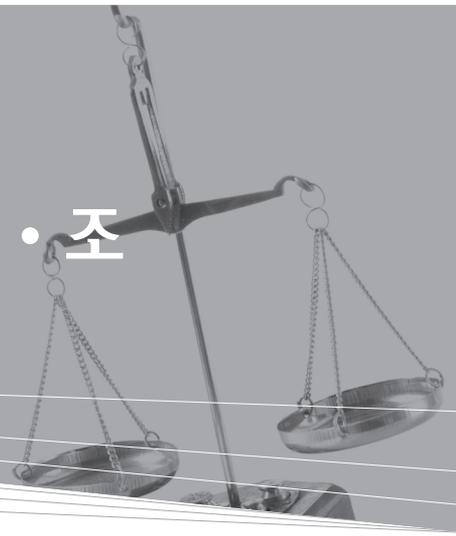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아버지가 혼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 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혼인외 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사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여 그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경우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외국 관서에서 아버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자와 부 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국에서 귀하를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미국 관공서가 발행하는 인지의 효력발생을 증명하는 증서와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은 후 인지신고를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거주 재외국민인 생부가 그 거주국 방식에

김민선 변호사

# 소 · 송 · 구 · 조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아내의 전혼자녀를 입양하여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3-220,221

담당 : 손난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9세, 국적 중국)와 피고(남, 54세)는 2008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 본인2(여, 5세)를 두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후 원고의 전혼 자녀인 사건본인1(여, 16세)을 입양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국으로 사건본인1을 데려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사건본인1이 한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피고는 사건본인1에게 스킨십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원고를 폭행하고 '한국은 원래 이렇다.'는 말로 원고를 세뇌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사건본인1의 선생님을 통하여 피고가 사건본인1을 강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2015. 9.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8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108회로 분할하여 2015. 10. 31.부터 2024. 9. 30.까지 매월 말일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2에 대하여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원고로 각 지정한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친권자로서의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요청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냄), 피고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3회 이상일 경우 피고는 원고 단독 친권으로 변경함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2의 장래 양육비로 2015. 10.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2:00시부터 같은 날 17:00시까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2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기타 추가적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원고는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전남편에 대해  
감치 10일 결정**

**법률구조 2014-37,82**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감치명령**

**내용 :** 신청인(여, 33세)과 피신청인(남, 32세)은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만4세)을 두었으나, 2011년 5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당시 피신청인이 매월 1일에 300,000원씩의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둬진 양육비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9. 3.)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OO구치소 OO지소로 정한다.

**전남편의 혼외자가 본인의 친자로 등재된 것을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4-325**

**담당 : 김영심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남, 49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2세)를 모로, 소외 망 임\*\*를 부로 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는 소외 망 임\*\*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로, 혼인 당시 소외 망 임\*\*이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를 모로 하여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후 소외 망 임\*\*의 폭행

으로 인하여 1976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을 통하여 소외 망 임\*\*과는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원고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가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자로 남아있어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2015. 6. 30.)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4-339**

**담당 : 심미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

**내용 :** 원고(여, 24세)와 피고(남, 25세)는 2010년 12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여, 약 1개월 뒤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임신 당시 피고는 군 입대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임신한 상태로 피고 면회를 다니며 피고의 제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휴가를 나온 피고는 원고가 출산한 날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가 거부하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원고를 병원에 홀로 방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원고를 실망시켰다. 제대 후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본가로 들어갔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나 병원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1.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을 매월 22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과 매월 마지막 일요일 11:00부터 17: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 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양육비 및 대학 등록금 등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14-373,374

담당 : 강은실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5세)과 상대방(남, 61세)은 슬하에 사건본인1(남, 19세)과 사건본인2(남, 18세)를 두었으나, 2005년 9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였고,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1이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여왔다. 사건본인1,2가 성장함에 따라 사건본인들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졌고, 대출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의 지급을 계속 거절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15. 4. 24.)

1.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원을 2015. 5. 2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법원 2014즈단\*\*\*호 부동산 가압류의 집

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2. 가. 상대방은 사건본인1의 대학 졸업시까지(휴학 기간 제외) 사건본인1의 대학 등록금, 대학 생활에 수반되는 기숙사비 또는 원룸 임차비용(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포함)을 전부 부담한다.

나. 위 가.항 기재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받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상대방은 사건본인1에게 사건본인1의 대학 졸업시까지(휴학 기간 제외)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1의 용돈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2의 향후 양육비는 청구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상대방은 청구인이 2006. 6. 22. 작성한 85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에 따른 권리를 모두 포기 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신청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어머니로 친권자 변경 조정**

법률구조 2014-377

담당 : 홍성준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의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6세)은 슬하에 사건본인1(남, 17세)과 사건본인2(남, 14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1년 6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 1,2의 친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사건본인 1,2를 양육하여왔다. 이후 2013년경 청구인이 이직으로 사건본인1,2와 함께 이사를 하여야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1,2의 친권자

였기 때문에 사건본인1,2를 이사하는 곳의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건본인들은 전학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양육을 맡고 있는 청구인이 친권자로 되어 있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울산지방법원 2015. 5. 14.)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된 것을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4-420**

**담당 :** 유진범 변호사

**사건명 :** 혼인무효확인외 소

**내용 :** 원고(여, 35세)는 2013년 9월 경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남, 33세)와의 사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중개인을 통해 은행에 제출하려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중개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고 원고의 서류를 넘겨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잘못된 혼인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 10. 0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9.5. 당진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양육비 등 조정**

**법률구조 2014-423**

**담당 :** 박성룡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57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이후 2004년 3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 이혼 후 청구인은 요식업체 단기아르바이트, 가사도우미, 중국어 수업 강사 등으로 근무하며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또한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가. 2015.5.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1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나. 2017.3.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상대방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월 2회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6

담당 : 오유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3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신혼 초 택시운전을 시작하였는데 늘 가정에 소홀하였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원고는 혼자 힘겹게 살림을 꾸려나가다 두 번의 유산을 하여야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원고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여자와 자주 통화를 하였고 원고가 그에 관해 물어보면 폭언으로 무마하려하였다. 또한 피고는 늘 원고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온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등 날이 갈수록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5.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2015. 8. 18.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남 OO군 OO읍 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5. 8. 18.까지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다.  
다. 위 가.항과 나.항은 동시이행의무 관계이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를 의심하며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32

담당 : 박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4세)와 피고(남, 62세)는 2007년 5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8세)과 사건본인2(여, 8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에 있으면 원고의 모에게 원고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모를 괴롭히곤 하였으며, 원·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1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하면서 사건본인1을 학대하였다. 사건본인1은 피고의 학대로 인하여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였고, 학대의 충격으로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1이 폐렴으로 입원하였을 때 괜히 아들을 낳아 피고를 괴롭힌다며 죽이겠다고 원고를 협박하며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의 언니가 경마에 빠진 피고에게 돈을 벌어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언니의 뺨을 수 십 차례 때려 원고 언니를 피투성이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4.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임상실습소감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법률관련봉사활동을 한 사법연수원 46기 연수생들의 소감과 법률 체험교육을 받은 양강중학교 학생의 소감을 실는다.

### 김 형 빈

사법연수원 46기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물을 하실지,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가정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일주일간 많은 전화 상담을 하면서 크게 느낀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가이든 상담자든 간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떠한 사안에 관련한 지식보다는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담자가 장황하고 어눌하게 말씀하시면, 중간에 말을 끊기도 하고, 제가 듣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실(주로 법리에 관한 것들)만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이어서 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 나 은

사법연수원 46기

처음 범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 알게 되어 사법연수원 봉사활동 기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법률 지식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었지만, 전화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 법률상담에도 고마워 해주신 분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참관의 기회를 통하여 내담자분들께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공부해왔던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찰하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 노 현 보

사법연수원 46기

법률관련 봉사활동을 오기 전에 저는 연수원 겨울 방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일이 많고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지를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실력 있는 범조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결정하였고, 그러한 몇 개의 기관 중 특히 가정문제가 곧 사회문제라는 생각으로 이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봉사를 지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짧은 5일 동안 저는 전화 상담과 상담 참관을 하면서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약자들이 많고, 제 자신이 아직은 그러한 도움을 드리기엔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런 범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 민 영

양강중학교 2학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 교육을 통해 이렇게 차별이나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상담소의 역할과 하는 일,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배우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나 여성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고 무료 소송까지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이전에는 여성차별이 심하여 여성을 위주로 상담했지만, 지금은 부부갈등 노인, 다문화 가정의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상담소 소식



##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해 12월 31일 전 직원이 함께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으며, 2016년 1월 4일에는 시무식을 가지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곽배희 소장은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지난 일 년 간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했으며, 시무식에서 '올해는 상담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상담소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생각하고, 상담소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 이태영 선생님 17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방문

2015년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17주기를 맞아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을 통해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으며, 회의 후 곽배희 소장 등 직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였다.(관련사진 2면)

## 가족법 주제 직원 재교육 실시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 - 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직원재교육이 있었다. 이날 직원재교육은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와 질의 응답

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상담 현장에서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본소에서는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가족법 강의와 더불어 폭넓은 사고, 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상담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을 비롯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관련사진 2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12월 15일 양강중학교 2학년 학생(30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법률구조 조사와 가족법개정운동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의미, 중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교육'을 주제로 영상시청과 강의를 있었다. 강의 후에는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잘 몰랐던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출장법교육

- 12월 4일/7일 폭력예방교육(양감중) - 김진영
- 12월 7일 폭력예방교육(송정초) - 이지현
- 12월 15일 법률구조체험교육(양강중) - 조은경/권하빈
- 12월 21일 법교육(세종과학고) - 조은경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임채영 변호사, 박도민 공익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7일 서울가정법원 조정 에 참여하였고, 18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아동의 안전 과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11일, 이화여대 젠더법 학연구소의 「2015 젠더 이슈」학술대회에서 「젠더관점에 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중 심으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 곽배희 소장, 가정법원 조정

본소 곽배희 소장은 12월 2일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했 다.

## 고맙습니다

###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곽성환, 김미혜, 김지후, 김태주, 남기웅, 류은아, 박수열, 박은정, 정수경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방선영, 송미란, 이승주, 장주용,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학생 자원봉사  
남보라, 박소연, 이진실, 황현정, 김도희, 김예진, 김수현, 박정현, 조혜린, 이다솜, 신예린, 백예린, 황지현, 민세근, 유재혁, 백평옥, 양예지 님
-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  
노현보, 이나은, 김형빈 님

###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강릉지부  
**오경식** 소장

2015년 법률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종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법률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법률상담소가 힘을 기울입니다. 강릉지부에서는 상담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해를 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리·남양주지부  
**정민영** 소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어려운 우리사회의 모습들이 있어 가족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소를 찾는 이웃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구리·남양주지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모든 가족들에게도 희망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6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속에 정성스러운 마음의 감동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큰 힘의 파장과 위력을 감히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16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주년을 맞이하여 더 뜻 깊은 의미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병신년에는 모든 지부에게 더 좋은 일들이 가득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성남지부  
**이정숙** 소장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처럼 가족의 건강, 상담소의 발전, 나라의 평안 등을 담아 '꿈보따리'를 꾸립니다.

해마다 담은 내용이 거의 같아도 매년 다시 싸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하나를 더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희망도 넣을까 합니다. 원숭이 해인 만큼 원숭이의 지혜를 닮아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현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보따리를 여러분들께도 나눠 드리렵니다. 겨울날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오고 계신 모든 가정법률상담소 동지들의 건강, 평안, 지혜, 발전을 기원하면서...



수원지부  
**박윤선** 소장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새해가 되리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2016년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상담소에 뜨거운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소는 2016년 새해에도 소외된 이웃의 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참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순천지부  
**유숙영** 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여러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지난 한해에도 깊은 관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상담소를 보살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의 시작도 지난해 못지않은 사회적 어려움과 추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새해에도 번민하는 이웃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대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가는 상담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지역사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일에 희망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지부  
**박희경** 소장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 가정의 해체를 막고, 법률구조 사업에 힘써 주신 본부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전국 지부의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인천지부 소장으로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법률구조 사업과 가정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법을 잘 몰라 힘들어 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올해 원성이 해에는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빌어 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더욱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주지부  
**제오복** 소장

중부지부의 2015년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를 실천하는 한해였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에도 더욱 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들이 방문하고 싶은 상담소,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사랑과 존중의 경험으로 개인, 부부, 자녀, 가족, 직원 모두 행복한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진주지부  
**조순덕** 소장

새롭게 맞이하는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가 개소한지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러 지부들, 수많은 이 사님들과 자원봉사자, 직원들의 도움으로 진주지부는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담소와 더불어 힘을 보태주시고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진주지부는 언제나 처음처럼 정직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원·마산지부  
**서정희** 소장

한 해의 시작과 그 끝에는 늘 겨울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찬란한 봄을 맞이하듯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그 성장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해도 무한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주지부  
**홍종호** 소장

2016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날 앞에서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반추하다보니 일상의 하나하나에 의미가 얹히며 작은 일들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목표에 이상과 사명감을 더하면 위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도 '쉬는 걸음'이 아닌 '일하는 걸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

웃을 위해 지역에서 작은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하나 하나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택·안성지부  
**최은숙** 소장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어렵지만 보람된 상담소와 함께 해오며 읊곤하는 시입니다.

사랑 많으신 고마우신 후원자들로 인해 새해에도 꽃이 되고 새가 되려고 합니다. 상담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고마우신 분들께 큰절 올리며 상담소에서 자존감과 삶의 희망을 되찾으시는 수많은 여성분들 앞날과 후원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포항지부  
**박해자** 소장

한반도 동쪽 끝,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끝으로 올라오는 장엄한 새해 일출의 벽찬 감동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병신년 새해, 지난해 아쉬운 것들은 모두 잊고 기쁨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합시다. 가슴속에는 희망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힘차게 풀어내며, 밝은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2016 작은 희망



글 | 그림 | 장차현실



## 2015년 11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5년 11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785건으로 본부가 5,765건, 지부가 7,020건이었다.

본부는 5,203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06건·소장 등 서류작성 204건·소송구조 5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913건·화해조정 1,001건·소장 등 서류작성 62건·소송구조 44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20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재산분할(14.0%→14.2%), 친권·양육권(6.1%→7.6%), 양육비(6.5%→8.4%), 친생부인(0.5%→0.8%), 입양(1.1%→1.2%), 파양(0.1%→0.2%), 성년후견(0.9%→1.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5%→4.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20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455건(28.0%), 전화상담 3,430건(65.9%), 통신 및 인터넷상담 287건(5.5%), 순회 31건(0.6%)이었다.

### 2015년 12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321			
법률상담 (5,679)			
면접	전화	통신	순회
1,317	4,090	270	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57		19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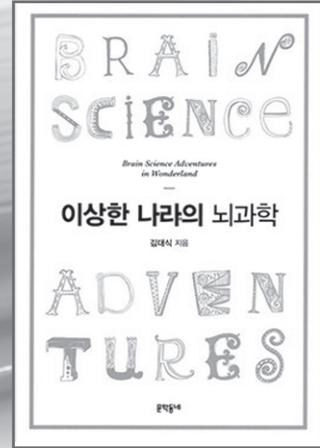
\* 2015/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280,170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순회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5,765	1,455	3,430	287		31	5,203	306	204	52	
강릉 (033) 652-9555	75	51	24				75				
거제 (055) 633-7636	214	212	2				214				
광주 (062) 672-6011	44	16	28				44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34	65	28	1			94	239		1	
군산 (063) 442-1560	120	53	67				120				
대구 (053) 745-4501	769	253	88			출장 196	537	226		6	
대전 (042) 520-5258	235	52	176				228			7	
제주 (064) 753-9421	395	125	142				267	120	1	7	
동해 (033) 535-0188	93	29	63			출장 1	93				
목포 (061) 273-2514	105		92	1		출장 1	94	8	2	1	
부천 (032) 667-2314	233	69	123				192	41			
성남 (031) 707-6661	363	208	73	4			285	72	2	4	
수원 (031) 243-4600	389	130	127	5		출장 64	326	55		8	
순천 (061) 753-9910	159	83	70				153	6			
충구 (02)2238-6554	744	388	353				741			3	
안동 (054) 856-4200	101	13	37			출장 8	58	40	2	1	
울산 (052) 246-9568	157	38	119				157				
익산 (063) 851-5113	276	82	187			출장 4	273			3	
인천 (032) 865-1120	434	131	245	13			389	24	12	9	
전주 (063) 244-2930	217	139	70	3			212	2	1	2	
청음 (063) 535-3705	102	40	53				93	7		2	
진주 (055) 746-7975	146	57	55	1			113	28		5	
창원·마산 (055) 261-0280	307	237	48	2		지상 1	288	10	3	6	
청주 (043) 257-0088	247	70	51				121	118		8	
춘천 (033) 257-4688	358	49	71			출장 238	358				
태백 (033) 554-4004	93	15	27			출장 51	93				
평택·안성 (031) 611-4251	168	87	70				157	4		7	
제천 (043) 644-5690	61	14	44				58			3	
포항 (054) 283-7555	81	8	72				80	1			
지부총상담	7,020	2,714	2,605	29	1	출장 563 지상 1	5,913	1,001	62	44	
총 상담	12,785	4,169	6,035	316	1	출장 563 순회 31 지상 1	11,116	1,307	266	96	

\*\*2015/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256,979건



## 이상한 나라의 뇌과학



김대식 지음  
문학동네, 2015

두 아이 특히 둘째 아이가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부터 다행히 무사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춘기를 지내는 동안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있다. ‘음 저 녀석의 호르몬이 미쳐 날뛰는구나’ 혹은 ‘아 저놈의 전두엽이 지금 재배치되는 중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나는 쌍욕을 되새김질 하며, 때로는 옆집 아들인양 떨어트려 놓고 보려고 노력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보니 아이는 그럭저럭 비교적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듯하다. 사춘기의 혼란이란 청소년기 아이들의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전두엽 백질의 양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등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뇌에 대한 지극히 얇은 한 줄의 지식이 지난한 시간을 버티어 내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란 말이다.

노년의 부모님은 치매와 뇌졸중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다. 늙은 부모님과 고모들이 차를 마시면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치매가 나올까, 뇌졸중이 나올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이상한 나라의 뇌과학」을 읽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뇌과학자, 정확히 말하면 뇌과학자인 내가 바라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 과연 뇌과학자가 바라본 사람과 세상은 당신이 본 것과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연과학에 가까운 책일 것이라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했는데 의외로 인문학 중에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 책 자체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고 - 내용들이었다.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마다 논란이 되었던 드레스의 색깔 논란을 시작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나 세월호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주제와 관련해 엄밀하게 뇌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문학, 철학, 신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책은 전체적으로 크게 네 부분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생각수술’ ‘불통과 소통’ ‘시대의 겸손’이라는 큰 제목 아래 ‘드레스 색깔 논란’ ‘존재적 외로움’ ‘확률적 착시’ ‘마피아의 뇌’ ‘IT시대의 겸손’ ‘호모사피엔스 vs 네안데르탈인’ ‘제국적 마인드’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같은 드레스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보는 세상을 같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신기할 따름이다.”라든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일을 묵묵히 참아내고, 게다가 그 일을 웬만큼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어찌면 우리의 진정한 비극인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 공감이 갔다. 또한 인간이 고향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적 외로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단테의 〈신곡〉과 ‘결정적 시기’라는 뇌과학 이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엮어내는 등의 통찰력이 책 전반에 넘쳐나서 즐거움을 준다.

지은이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로 독일 막스-플랑크 뇌과학연구소에서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에서 뇌인지과학 박사후 과정을,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보스턴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했다. 뇌과학과 뇌공학, 사회 뇌과학,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 2016년 1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 교원 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 연수기간 : 2016년 1월 13일~15일  
(매일 10시30분 ~ 16시30분)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경기·인천지역 초·중·고 교원 40 명  
(선착순 모집)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개정사 /혼인·약혼에 관한 법률/ 이혼에 관한 법률/  
친자·양자에 관한 법률/ 상속·유언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부/출생신고/혼인신고/등록부 정정 등)
  -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교 내 폭력예방교육의 이론/ 예방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실습)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월 28일(목)	부부갈등의 분석과 진단
2월 25일(목)	뇌의 속성과 다름
3월 24일(목)	마음의 구성과 감정
4월 28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5월 26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6월 23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7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새해 2016년은 1956년 이 땅에  
 법률구조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상담소가  
 그 문을 연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상담소의 맡은바 소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항상 상담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신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